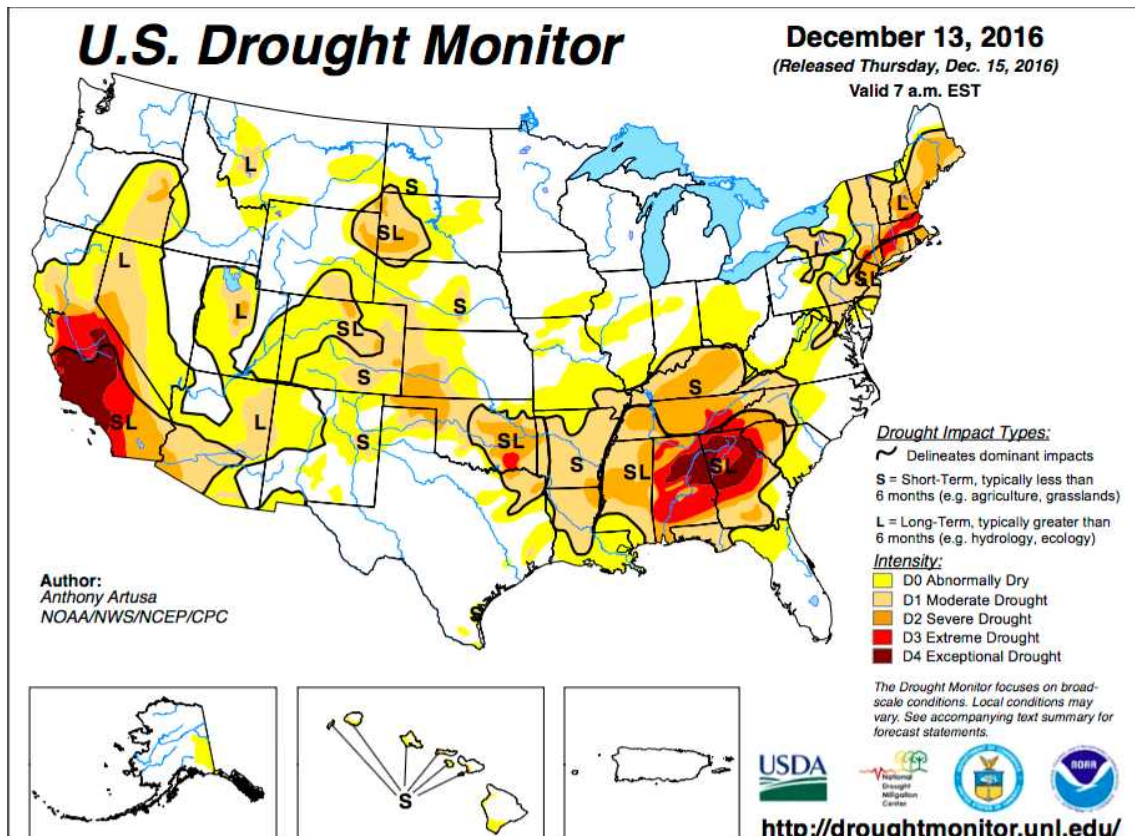


12월 2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51)

□ 미국 기후 현황(12/11~12/17)

동부, 서부 및 북부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몇 차례 비가 내렸다. 북부와 캘리포니아 중부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오래 지속되어 오던 가뭄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로키산맥에도 꽤 많은 양의 눈이 쌓였다. 중부의 겨울밀 재배지 일대에서도 눈이 조금 쌓여 동해피해를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하이오 남부에서부터 걸프 만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비가 내렸다. 하지만 대서양 연안 남부 일대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고 있고, 가뭄도 이어지고 있다.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20~30°F 이상 낮은 날씨를 보였고, 로키산맥 북부에서부터 오대호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평년에 비해 10°F 정도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졌다. 남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는데, 로키산맥 남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다. 북부에서는 주 후반에 강한 한파가 몰아닥쳤다. 중부에서는 17~18일 사이에 큰 추위가 찾아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에서는 기온이 0°F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 농업 현황 요약(12/12~12/18)

미주리에서부터 몬타나, 사우스 다코타 및 노스 다코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8~30°F 낮은 날씨를 보였다. 반면 남서부와 걸프 만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태평양 연안지역과 오하이오, 걸프 만 일대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다.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등에서는 5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12/11~12/17)

■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프랑스에서부터 영국 남동부 및 이탈리아 등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했고, 남동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2°C 정도 기온이 낮은 곳도 있었다. 독일 북동부, 폴란드,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10~22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10~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러시아 남부 등에서는 눈이 내렸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적설량은 2~15cm 내외였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 22°C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러시아 중부와 남부에서도 5~20cm 내외의 눈이 내렸고 기온이 영하 27°C까지 내려갔다. 눈이 쌓이면서 추위를 막아준 덕분에 겨울밀의 동해는 거의 없었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의 겨울작물 재배지역에서는 1~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양쯔강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았고, 북부 평원에서는 겨울밀이 휴면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주간 기후현황 요약은 2017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2~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일부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겨울밀 수확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인해 밀, 보리, 캐놀라 등의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호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15일 기준 뉴 사우스 웨일즈와 서호주의 겨울밀 수확률은 각각 65%,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남부와 빅토리아 등에서도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빅토리아의 겨울밀 수확률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와 남부의 밀 재배지 일대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다.

■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의 La Pampa, Cordoba 남부, Buenos Aires 서부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Buenos Aires 서부, Santa Fe, Entre Rio 남부 등에서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 중후반까지 올랐다. Salta 동부와 Formosa 등 북부 농경지역에서도 맑은 날씨를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30°C 중후반까지 올랐지만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15일 기준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99%, 63%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두의 파종률은 70%로 나타났다. 밀 수확률은 58%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에 비해 다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 브라질: 중서부의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와 북동부 내륙의 Tocantins, Bahia 서부, Piaui, Maranhao 등에서는 50~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남동부의 커피, 사탕수수 재배지역에서도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 오르기도 했다. 반면 남부의 Rio Grande do Sul, Parana 남부 등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올랐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12월 12일 기준 개화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